

『東京ニ李洛淵』 『을두초』는 여자들을 후려갈기며 쪼တ်이 애를 팔아서 잡아 때려 먹지로 트럭에 실어 넣었다. 그전 마치 노예사냥이었다』

『日帝말기 한반도에서 수많은 한국여성들을 일본군의 종군위안부로 강제연행했던 당시의 일본』 『勞務報國會』 간부가 자신의 죄상을 자신의 일일로 털어놓았다.

1943년부터 1945년8월 終戰까지 야마구치(山口)縣) 노부보국회(동원부장)로 일했던 요시다 세이지(吉田清治·78·지바縣)와 비고시(市)주는 지난21일 홋카이도(北海道) 신문과 회견, 『역사적 사실을 말해 남기는 것이 大罪를 저지른 자의 책임』이라며 이같이 고백했다.

당시 한국인 강제징용은 『大日本노부보국회』가 담당했으며 요시다가 책임자였던 야마구치縣 노부보국회는 慶南(全南) 및 濟州道 등지에서 남녀 3만명을 끌어들였다. 이 가운데 1천명의 여성(중년위안부)을 포함한 6천명의 징용은 요시다 자신이 직접 지휘했다고 그는 밝혔다. 그가 밝힌 종군위안부 징용실태와 그의 실정은 다음과 같다.

『후쿠오카(福岡)의 육군 서부군사령부에서 야마구치縣 노부보국회장(縣지사 겸임) 앞으로는 비 노부동원명령서가 왔다. 명령서에는 『皇軍위문조선인 여자정신대(〇〇명)』 『신체건강한 자(의사의 신체검사 기록이 없는 자를 합산)』 이라는 내용과 마감일시기가

나오며, 젊고 튼튼해 보이는 여자를 골라 트럭에 실었다. 안고 있던 아기를 먹지로 잡아떼고 징용한 일도 있었다. 비명을 지르는 젊은 엄마를 때려 넘어뜨리며 트럭에 실었다. 두세살짜리 아기가 울면서 쫓아왔다. 그걸 낚아 쫓아냈다. 애원하는 늙은 여자(할머니)를 발로 차서 넘어뜨렸다.

『은 마을이 공포의 도가니였다. 어린이들은 평생 누구 한 사람도 종군위안

부인이었다.』

종군위안부를 포함한 강제연행 관련 공식 기록이나 관계문서는 終戰 직후 내부 소관관료청에 의해 모두 삭제분했다.

『그래서 일본정부는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관여한바 없다고 우기는 것이었지만, 저의 체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軍과 경찰및 행정기관이 一體가 돼서 한 일이었다.』

『皇軍병사』라면 모른다는 사람이 없을 터인데도 戰後 누구 한 사람도 종군위안